

## 합동전화

로카디파파, 2017 년 6 월 17 일

다시 사랑의 불을 당깁시다

(목차)

1. 시작 인사  
콜롬비아 (프란체스코 교황 방문), 스리랑카 (일시적 포콜라레)와 전화 통화
2.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예수스와의 대화
3. Breaking Rays  
커뮤니케이션 국제 네트워크, 함께 학교에.....
4. 인도: 무지개 아이들  
기회가 없는 곳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한 여성
5. 세계 시민 되기  
젊은이, 청소년들, 자신의 시간을 다른 이들을 위해 활용.
6. 브라질 마릴리아와의 전화 통화 (평화를 위해 한국에 간 젊은이들)
7. 필리핀: 세라핀의 꿈  
바뀐 꿈, 그리고 '평화의 건설자'의 탄생
8. 터키: 마리아폴리에서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의 만남
9. 나이지리아: 라고스와 아부자의 마리아폴리  
용서와 대화, 국가의 일치를 위한 참 무기
10. 이탈리아: 디지털 시대의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 과학기술 대하기.....

11. 로베르토 치폴로네 -치료, 장인. 예술가

각 제품에 생명, 의미 그리고 아름다움 부여.

12. 다시 사랑의 불을 당깁시다:

포콜라레 운동 회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끼아라 루빅, 일치의 카리스마의 본질인 사랑을 되찾도록 초대. 1986년 10월 9일 합동전화.

13. 끝 인사

1. 시작 인사

(박수)

안젤라 맘마나: 모든 분께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드립니다!

시모네 산토로: 반갑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분께 인사 드립니다.

안젤라: 저희는 안젤라와 시모네이고, 결혼한지 5년 됩니다. 우리는 시실리 출신이지만 로마에서 살고 일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시실리 분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웃음)

시모네(악기 연주): Benedica a vossia! (박수)

안젤라: 사투리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이란 뜻입니다.

저는 심리학자이고 남편은 물리학자입니다.

시모네: 합동전화 사회를 맡아 달라고 했을 때 정말 놀랐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안젤라: 그럼, 즉시 우리의 세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콜롬비아의 산드리와 연결하겠습니다. 산드리 연결됐나요?

산드리 솔라노: 네,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시모네: 차오, 산드리!

산드리: 차오, 시모네!

시모네: 산드리. 그 곳은 아침 6 시지요. 커피 마셨나요?

산드리: 맛있는 커피 마셨습니다!

시모네: 좋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얼마 전에 콜롬비아를 떠나셨는데, 교황님의 방문이, 수천 명의 사망자와 7 백만명 이상의 실항민과 많은 고통을 초래한, 50 년간의 내전을 온전히 종식시켰기를 바랍니다. 방문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드리: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함께 했던 날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총이었습니다. 늘 하시듯이 제스처와 미소로 그리고 겸손히 말씀하셔서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황님의 말씀은 희망으로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했던 순간은 '빈첸시오 빌라'에서였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의 분쟁 앞에서 우리 마음을 무장해제 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걸음을 내딛도록 초청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는 우리 가정,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대 일로 건설하는 것임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끼아라의 자녀들은 이제, 콜롬비아의 평화 건설에 주력 할 것입니다.

안젤라: 산드리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건설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인도양에 있는 스리랑카와 연결하겠습니다.

시모네: 후고 연결됐나요?

후고 고메츠: 차오, 모두 안녕하세요?

시모네: 차오 후고! 후고는 스페인 분인데, 스리랑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후고: 차오,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도 남쪽 인도양에 있는 커다란 섬으로 젊은이가 40%이고, 대부분이 불교도인 스리랑카에 와 있습니다.

저는 휴가를 가는 대신 브라질의 티타, 말레이시아의 카테리네, 필리핀의 자이 그리고 이태리의 마릴루와 여기 일시적인 포콜라레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곳의 이상을 사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준,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큰 사랑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지속된 내란 후에 스리랑카는 재건에 성공하여 지금은 남동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수위를 차지 하고 있지만, 전쟁은 화해의 필요성과 형제애에 대한 커다란 목마름을 남긴 채 겨우 9년 전에야 끝났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한 것 외에도, 수도 콜롬보의 4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17~18세의 다양한 종교에 속한 약 350명의 청소년들에게 일치된 세계는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내일은 초청된 모든 젊은이들에게 2018년 마닐라에서 열릴 젠 축제를 소개할 하루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스리랑카도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도 계속 다른 도시들에서도 초청할 것입니다.

시모네: 후고 감사합니다!

후고: 스리랑카에서 이상을 아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작은 그룹이 처음으로 연결되어, 정말 기쁩니다. 스리랑카어로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모두: 아유보완 (만수무강하십시요).

시모네: 후고와 콜롬보 공동체 모든 분께 온 마음 다해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포콜라레"를 전 세계 40개 도시에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안젤라: 이제, 강당에 있는 식구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룹의 라치오 식구들이 있는데, 어디 있지요? 저기 있군요. 차오! (박수)

그리고 연례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 61명의 전 세계 포콜라레 운동 대표들이 있는데, 인사 드립니다. (박수)

몇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해 볼까요?

시모네: 그러면 나는 좀 더 젊은 층이 있는 곳으로 갈까 하는데 괜찮지요? 누구와 인사를 나눌지 봅시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노렌: 네!

시모네: 어디서 오셨는지, 무언가 얘기 좀 해주시고, 그 곳 언어로 인사해 주세요.

노렌: 저는 노렌이고, 스코틀랜드 인이지만, 지금은 영국의 소도시에 있는데,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Hi to everybody!

시모네: Thank you. (박수)

안젤라: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누군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신지요? 자신에 대한 소개나 인사 한 마디..... 어디서 오셨는지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클라우코: 저는 이탈리아 우디네 출신인데, 2년 전부터 타일랜드에 있습니다. (타일랜드어로 인사)

안젤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아주 독특하고, 다문화적인 강당입니다. 모두가 15일간 계속될 모임을 위해 이 곳에 와 있습니다.

## 2. 엠마우스, 헤수스 인사

시모네: 여기 우리와 함께 엠마우스와, 헤수스도 계십니다! (박수) 엠마우스, 뭔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엠마우스: 이 모임의 의미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세계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거나, 보고 있는 모든 이에게 인사 드립니다.

여러 분은 얼마 전부터 이 곳에서, 어느 모로 전세계 사업회의 새로운 분배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얼마 전부터 시작한 '사업회의 새 모습'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인데,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 많은 의심을 불러 왔고, 솔직히 그 중의 몇 가지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 서서히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린 문곤 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큰 지역을 보살필 수 있겠어?" 혹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 있었던 포콜라레를 다른 곳으로 옮긴단 말인가?" "일의 어려움, 적응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가능해!"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청하시고, 성령께서 이런 변화들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결실로,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삶을, 새로운 주인정신을, 모두가 노력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폴리의 수가 증가하고, 구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그들이 직접, 자신들이 산 경험의 기쁨, 체험한 결실들을 전하기 위해 내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삶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창의성, 주인의식, 모두의 노력, 삶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삶입니다.

이 것은 5 대륙의 사업회 대표들이 이 곳에 모인 지금 더 부각됩니다. 무엇을 위해 모였나요? 지금은 그들이 이곳에 왔고 우리는 이 결실들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업회 총본부 전체와

더불어, 이 '새 모습'을, 세상에 사업회를 재분배하는 이 여정을 완성하도록 영양을 공급받고, 지지 받고, 도움을 받은 심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심장 전체가 함께 이 곳 총본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 개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의 심장입니다. 이 곳 총본부에서 일하는 총 본부에 있는 이들도,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이들도 이 유일한 심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이 15 일간, 우리는 참된 보편성의 경험을 하고자 하는데, 서로를 좀 더 깊이 알고, 각자가 간직할 줄 알고, 함께 바라보기 위해 자신의 지역을 잊을 줄 아는 사랑으로 진정으로 상대방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 그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결국에는 사업회 전체가 각자의 것이며, 각자의 것이 전체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새 모습'은 계속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돌아 갈 때는 이 새로운 영혼으로 끼아라의 모든 가족들에게 사업회에 대한 이 보편적인 시각을 가져갈 것입니다. 즉 전체가 각자의 것으로, 그 누구도 "이 부분은 나의 것이 아니야"라고 할 수 없으니, 전체가 각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치의 여행이므로 당연하고, 쉽지만은 않을 것이므로, 이 여행을 위해 마리아께서 우리의 인도자 이시고, 스승이 되십니다. 올해 우리는 마리아님을 특별히 드러내 보이하고자 하며, 마리아님께 한 해를 바쳐드리고자 합니다.

카리스마를 생활 한 세상의 모든 곳의 결실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우리가 모두 함께 만나는 것이 특별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심장, 즉 함께 모이는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심장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업회 전체인 지체가 올 해에는 마리아님을 좀 더 잘 알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있는 모든 지점에서 우리가 다가가는 그 누구나가 그 곁에 있는, 이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경청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여정을 지탱해 줄 줄 하는 어머니의 심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그 누구도 "나는 이 사업에는 상관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곳에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야 하니, 형제들로 이루어진 인류 가족을, 예수님께서 꿈꾸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꿈꾸며 실현시키고자 하는 "저 모든 이가 하나되게 하소서!" 를 실현하는데 우리의 몫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것이 이 모임의 가장 깊은 뜻이며, 이 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참여시켜 "함께 이를 삼시다"라고 할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젤라: 엠마우스, 감사합니다!

헤수스, 특별히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 미리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헤수스: 네. 이제 6년인 우리 임무의 반인 3년째를 맞아, 몇 가지 성찰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 큰 선물인 일치의 이상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혹은 교회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 대화 면에서, 특별히 개혁 500주년을 기념했고 또 기념하고 있는 올해, 교회 일치 대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들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것들은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각 질문 뒤에는 한 삶의, 성찰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니, 우리는 향후 3년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보기 위해 성찰, 모임, 그룹 작업 등을 할 것입니다.

안젤라: 아름답습니다, 헤수스, 엠마우스 감사 드립니다!

안젤라: 저희에게도 새로운 소식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합시다. 핸드폰 문자, 이 메일, 페이스 북을 통해 여러분의 인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메일 주소, 핸드폰 문자 주소, 페이스 북 주소 보여주며 읽어 줌)

### 3. Breaking Rays

시모네: 합동전화는 끼아라가 1980년에, 전 세계에 퍼져있는 가족들을 함께 모으고, 기쁨, 고통, 희망, 프로젝트, 스토리, 경험담 등 이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창안한 것입니다.

안젤라: 여러 나라에서 도착한 소식들을 통해 오늘도, 이 세계 여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7월에 로마 근교에서, 이제 합동전화 제작에도 도움을 주고 협력하게 될 '비디오 제작자'들의 국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음악, 자막)

카스텔간돌포, 이탈리아

2017년 6월 28일 - 7월 7일

베라 (in inglese)(여): 'Breaking Rays'는 영감이며

마르첼로 (in inglese) (남): 보편적이고

비키(in tedesco) (여): 힘든 작업이며

제인(in inglese): 강력하고 풍부하며

트릭시(in inglese) (여): 새로움의 시작이며

로벨(in spagnolo) (남): 성장이고

마르첼로 (in inglese) (남): 풍부한 지식과..... 가족

(음악과 자막)

10 개국 22 명의 커뮤니케이터 최고의 전달자가 되는 법 배우기

제인, 뉴델리, 인도 (in inglese) (여): 미디어 업계에서 10 년간 일 한 후, 마치 학교로 되돌아와,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자신의 믿음을 전문성에 통합시킬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막)

재능과 경험을 나눈 10 일

수업과 양방향 워크숍

미디어 제작의 다양한 측면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각적 스토리 텔링 및 인터뷰에 중점을 둔

조명 및 구성

음향

편집과

실제 프로젝트 그룹 작업

파트리치아 리오데 자네이로, 브라질 (in portoghese) (여): 우리의 모든 재능, 전문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소통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한 동등하고, 상호적인 나눔이었습니다.

(자막)

합동전화의 한 성장단계,

자신들의 일과 일치된 세계의 이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커뮤니케이터들의 네트워크 건설.

루크, 부쭌부라, 부룬디 (in francese) (남):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치된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전파해야 할, 경험입니다.

비키, 뮌헨, 독일 (in tedesco) (여): 전문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의 네트워크 구축은 항상 가능합니다. 각자 자신의 몫을 하며 건설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에만 무언가 거대하고 독특한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Breaking Rays UE 로고

#### 4. 인도: 무지개 아이들 (Rainbow Kids)

안젤라: 이제 이 코스의 결실 중, 첫 작업 중의 하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르첼로 바츠가 2 천 백만의 인구가 사는 대 도시인, 인도의 뭄바이에서 제작한 것으로, 무지개 아이들 (Rainbow Kids)의 스토리입니다.

제목: 무지개 아이들(Rainbow Kids)- 뭄바이, 인도

자막: 시작

패트리샤 퍼타도, 교사 (여)/ 창립자 (in inglese): 모든 것은 씨나라는 한 아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그 아이는 45.000 – 50.000 루피 상당의 핸드폰을 훔쳐 60 이나 100 루피에 팔려고 했습니다. (.....) 씨니를 만나러 갔는데, 그 아이는 배를 굶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는데 양부는 씨니를 탐탁지 못하게 여겨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훔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나는 씨니를 축구 경기에 초청했습니다. “네게 신발과 필요한 것을 줄 테니 축구를 하렴.” 씨니는 빈민가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 그룹에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씨니가 함께 경기를 하고 혹시 배가 고프면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눌 한 그룹의 친구를 갖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씨니는 도둑질을 멈췄습니다.

자막: 이름

패트리샤: 모든 빈민가의 각 구역은 그 곳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 이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시장 가까이에 살면 “과일 도둑들”이라 불리고, 바다 근처에 살면 “자동차 도둑들” 이나 “핸드폰 도둑들”로, 맞은 편에 사는 이들은 “집 도둑들”, 부모들이 살아남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지역의 (.....) 아이들은 그런 명칭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색깔을 주자”. 무지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요. 나는 한 그룹은 “파란 색들”로 칭했고.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창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따는 것을 가르치는 지역은 “주황색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을 색깔로 부르면..... 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모두가 함께 하나의 무지개처럼 모였고 형제 자매들처럼 놀았습니다.

자막: 학교 다니기

패트리샤: 그들 중 몇몇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지개 팀에 속하려면 학교에 다녀야만 한다고 했지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들이 하인이었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너희들은 성장하고 무엇이든 해 낼 수 있어. 너희들이 공부하기 원하면 내가 도울게”. 그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학교에 다니는지 보러 갔습니다. 그들이 진보한 것을 보여주면 격려의 표시로 공, 셔츠 같은 작은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많은 본당에서 경기에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내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막: 후원자들

패트리샤: 많은 부유한 가족들이, 내가 나눠주는 신발이나 셔츠 등을 내게 가져다 줍니다.

사노시 둥그레, 학생/ 축구선수 (남) (in inglese): 엄마와 아빠는 건설 노동자로 일합니다. 패치는 나를 학교에 데려갔고, “축구 좋아하니?”하고 물었는데, “네”라고 답했더니, 내게 새 셔츠와 반바지를 주었습니다.

수니타 비스트, 학생 / 물리치료사 (여) (in inglese): 저는 성 요셉 학교에 입학허가를 얻기 위해 갔습니다. 논술을 적어 보라고 했는데..... 나는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입학을 거부하며 사흘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고,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청했지만,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나의 천사 패치가 와서는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해 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와네쉬와 캠블, 학생크리켓 선수 (남) (in inglese): 패치는 우리가 은행통장을 개설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엄마가 지장으로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서명하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엄마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잘 도와 드렸습니다.

라리타 비스트(여): 우리가 패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는데, 그는 하느님의 천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어 주었고,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이네스와 캠블(남): 나는 크리켓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수니타 비스트(여): 나는 회계사가 되려고 합니다.

사노시 둥그레(남): 내 꿈은 축구선수와 코치입니다.

라리타 비스트(여): 나는 물리치료가 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택했습니다.

패트리샤: 나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나의 재능을 주시면, 함께 나누고 최대한으로 활용해라”. 이 것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무언가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행복을 맛보았으므로, 다른 이들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전파하고자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막:

은퇴 하키 국가선수이며 교사인 패트리샤 퍼타도는, 그가 속한 포콜라레 공동체와 함께 17 년 전부터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다가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다.

제목: 무지개 소년단- 뭍바이, 인도

시모네: 이 아름다운 스토리에 대해 패치에게 감사 드리며, 우리에게 이 것을 알려 준 마르첼로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미얀마에서 도착한 메시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미얀마의 공동체는 처음으로 합동전화에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15 명인데 우리 마음이 세상의 크기만큼 넓혀짐을 느낍니다.

(박수)

시모네: 인사 드립니다! 차오! (박수)

## 5. 세계 시민 되기

안젤라: ‘세계인 작업장 *Hombre mundo*’ 과 젊은이 캠프는, 이 곳 로마와 여러 다른 곳에서처럼, 6 천 명 이상의 청소년, 젊은이들을 가족들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이 함께, 소매를 걷어 부치고 여러 도시 외곽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청소하고, 그 지역 청소년들이 그 지역 사회 협회들과 협력하게 했습니다. 이 경험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 넘었는데,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피커: 작업장, 워크샵, 여름 캠프: 약 3 개월동안 세계 여러 곳의 젊은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선입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키우는데 기여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할애했다.

(영상)

이탈리아의 로마나 시라쿠자 같은 도시의 변두리 지역과 우범지역들이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끌어당겼다.

조지 나칼라, 시리아: (in arabo): *“이런 동네들에 대한 관심, 이처럼 다른 이를 생각하는 것은 아름답고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피커: 남 아프리카의 워렌톤에서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조화의 가치, 인종의 다른 점의 풍요로움 등에 대한 성찰이 동기가 되어, 43 명의 젊은이들이 도시의 도로변에서 쓰레기 수거를 수거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 삼중기도 2017 년 7 월 23 일,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시국: *여러 대륙의 빈민 지역들에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고자 노력하는 “세계인 작업장” 행사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에게 나의 마음과 격려를 보냅니다.*

스피커: “세계인 작업장”은 아프리카, 중동, 북미와 남미의 49 개국 53 개 도시의 6 천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다.

폴란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같은 곳의 작업장은 국제적이었다.

글렙, 러시아 (in russo): *“..... 우리는 러시아 여러 지역, 아주 먼 지역에서도..... 이 곳에 왔습니다. 이 것 역시 전 세계에서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일치를 향한 한 발걸음입니다.*

발로라, 베네수엘라 (in spagnolo) *“경험담 나누기 때 내게 인상 깊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얘기한 것인데 (.....), 우리 나라에도 전쟁이 있지만, 베네수엘라처럼 세계 다른 지역에도 전쟁과 정치 충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의 우리들은 베네수엘라에 선물하기 위해 무언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로고)

## 6. 브라질 마릴리아와의 전화 통화 (평화를 위해 한국에 간 젊은이들)

시모네: 브라질 상 파울로의 마릴리아가 한국에서 했던 조금은 독특한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릴리아 (포르투갈어): 차오, 저는 브라질 젠 마릴리아입니다.

8 월에 우리 대교구의 추기경님께서 한국에서 열린, 세계 평화순례에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함께 평화를 위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주간 동안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비무장 지대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캄보디아 등 15 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포콜라레운동의 유일한 참가자였지만, 우리 순례의 주제는 '백성들의 일치' 였습니다.

저의 나라로 되돌아 온 지금, 한국의 현실은 이제 나의 것이며, 매일 모든 행위를 일치된 세계를 위해 바칩니다.

일치 합니다.

시모네: 마릴리아 감사합니다. 평화의 노력은 우리 모두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7. 필리핀: 세라핀의 꿈

안젤라: 며칠 전에 우리는, 2001 년 9 월 11 일의 뉴욕 쌍둥이 빌딩 공격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마닐라의 세라핀 아르비올라는 그 날 바로 그 곳에 있었는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막:

마닐라, 필리핀

세라핀의 꿈

세라핀 아르비올라, 사무국장, 지역사회 커뮤니티 파트너십 확장 사무실 (CPEO) (in English): 저는 세라핀 아르비올라 입니다. 이 곳은 필리핀 사범대학교"이며, 저는 역사와 교육학 부교수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저의 가족을 돕고 자립할 것을 꿈꾸었으며, 미국에 가서 우리 옆집처럼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한가지 길은 공부였는데, 공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청소부로 일했고 시장에서 고기 구이, 레몬 판매 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시장의 일을 잃게 되었을 때, 저의 할머니께서 저를 가난한 이들을 돕는 한 센터인 'Bukas Palad'에 데려갔습니다. 그 센터의 직원 한 분에게 "저는 돈을 벌어서 할머니를 돕고 싶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고 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사회과학 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을, 저의 가정과 제 자신을 위해 했지만, 무엇보다 미국에 가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저의 야망을 위해 했습니다.

제가 유엔으로부터 이 곳 필리핀의 "청소년 능력 개발 및 평화 교육"에 관해 이야기 해달라고 초청을 받은 것은 2001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에 한 필리핀 여성을 만났는데 "여기서 일하기 원하면 내일 세계 무역센터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날에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뻐고, 하느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2001년 9월 11일에 저는, 세계 무역 센터에 갔습니다. 비행기가 무역 센터를 관통하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창문에서 뛰어 내리는 것과 대참사를 보며 "하느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민다나오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에 대한 교육'에 관해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 때 이슈였던 무슬림에 관한 것은 내 내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머물던 그 기간 중에 저는, 제가 필리핀에 돌아가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민다나오에 가서, 나와 관점이 "다른" 무슬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세 달 후에 저는, 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 심사를 받고 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결실은 바로, 지금 전쟁 중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해결의 전략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로부터, 민다나오에서의 저의 경험과 세계 무역센터의 폭격에 관한 저의 성찰에 대해 얘기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저의 학생 중 몇 명은 무교이며, 몇 명은 보수 가톨릭이고, 한 학생은 무슬림이었는데, 교실에는 적개심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 후에는 친구들이 되었는데, 대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이기 때문인데, 바로 '공감'입니다.

제 삶에 대해, 모든 축복과 해결책들에 대해 그리고 제가 이 곳 필리핀에서 교수로서, 평화 조성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매우 만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른 것을 꿈꾸었지만, 하느님께서 제게, 교사들의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 자막

“공동체에 기반을 둔 평화 건설 프로그램”은 아시아 7 개국에서 활용되었다. 현재 세라핀 아르비올라는 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며, 유네스코 및 글로벌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 중이다.

(박수)

시모네: 세라핀, 이 경험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8. 터키: 마리아폴리에서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의 만남

시모네: 이제 이 기간 동안 열렸던 마리아폴리에 대해 얘기합시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두 개의 마리아폴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터키입니다. 여러 도시, 의식, 종파의 70 여명이 부유 카다 섬의 마리아폴리에 모였는데, 바르톨로메오 1세 총대주교님과의 약속을 위해, 배로, 그 분이 계신 동방교회 신학교가 있는 할키 섬에 갔습니다. 모두와 함께 1967년 6월 13일, 끼아라와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님의 만남 50주년을 기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르톨로메오 1세 총대주교: *한 사람은 남자이고, 다른 사람은 여자였으며, 한 사람은 성직자, 한 사람은 평신도였고, 한 사람은 정교회, 다른 사람은 가톨릭이었고, 한 사람은 동양인, 다른 사람은 서양인이었고, 한 사람은 그리스인, 다른 사람은 이탈리아인 이었는데, 온 마음 다해 서로 다른 교회의 일치를 원했습니다.*

## 9. 나이지리아: 라고스와 아부자의 마리아폴리

시모네: 이제 라고스와 아부자에서, 두 개의 마리아폴리가 열렸던 나이지리아로 옮겨가겠습니다.

스피커 (남) 영어: 인구 1억 8천 6백만의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문제들과 비극적인 소식이 주를 이루지만, 어떤 때는 소박하지만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건들도 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와 아부자의 포콜라레 운동 구역 공동체가 준비한, 두 개의 마리아폴리 같은 경우가 그렇다.

세계에서 청년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만큼, 라고스 마리아폴리 참가자의 80%가 젊은이인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상문들은, 부족들 간의 그리고 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용서와 대화에 대해 말한다.

수도 아부자 근교에서 열린 마리아폴리에는 300 명이 참가했다. 30 명은 이슬람 군대 '보코 하람'의 요새가 있는 지역인 북동 쪽의 마이두구리 시에서 왔다. 마이두구리의 주교님께서 일치의 이상이 그 지역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그들이 참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처음으로 참석했고 그들은 몇 가지가 그들 전통에 반하는 것을 보았다. 몇몇은 남자들이 부엌에서, 전통적으로 오로지 여자들만 하던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한 부인은 억지로 참석했었는데, 마리아폴리 인상문 시간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 나누었다.

부인: 저는 제 할아버지 뺄 되는 분께서 그릇을 치우는 것을 보았는데 그 것은 저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 너머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곳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스피커 (남):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문화에서, 말할 용기를 갖는 것을 본 몇몇 이들에게,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마야 (여자 아이): 어제 노는 동안 한 남자 아이가 나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나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해 주었어요.

스피커 (남): 마야의 경험담이 아버지가 '보코 하람' 군에 의해 돌아가신 마이두구리의 한 남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남자: 마야를 보았는데, 한 여자 아이였지요. 마야가 용서할 수 있었다면, 저도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스피커 (남): 용서와 대화는 마리아폴리에서 부각된 키워드로, 집에 가서 계속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아이들: '마리아폴리' 라고 외침)

(박수)



## 10. 이탈리아: 디지털 시대의 가정 안에서

안젤라: 끼아라는 이태리인이고, 데비드는 스코틀랜드인 입니다. 이 곳 가까이 아리차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족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음악과 자막: 아리차, 로마, 이태리

데비드 벨, 물류 관리자/ 아버지 (in Inglese): 저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지만 끼아라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태리에 사는데, 이 곳 아리차에서 삽니다.

끼아라 벨, 교사/ 어머니(in Inglese): 저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에 있던 '99 년에 데비드를 만났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싶었는데 마리아폴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하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나라면 결코 하지 않을 한 활동을 할 테니, 보상으로 제게 한가지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긴 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데비드: 우리는 등산을 하는 동안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끼아라: 등산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길을 오르내리며 계곡에 도달했을 때는.....그만, 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데비드: 긴 산책은 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등반이 시작되고 시간이 갈 수록, 배낭은 점점 더 무거워지지요.....

끼아라: 우리는 2002 년에 결혼했고, 첫 아이 알렉산드는 9 월에 13 살이 되는데, 공학을 좋아하고 매우 창조적입니다. 그리고 11 살인 다니엘 이 있는데, 그 아이의 사진은 늘 여기 저기 상처투성이입니다. 마치 스텐트 맨 같지요. 5 살인 마틸데는 한 예술가로, 그림을 정말 잘 그립니다. 가끔 우리에게, 이태리 상표 'Mulino Bianco' 광고에 나오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정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데비드: 5 살 아이부터 시작해서 사춘기까지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끼아라: 알렉산드가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핸드폰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데비드: 동갑내기들이 모두 갖고 있었고, 숙제 하는데, 우리와 연락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였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을 빼앗길까 봐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끼아라: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릴 수 있는 위험도 있었던 것이지요.....

데비드: 유혹 중 하나는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끼아라: 나는 뒤 따라 다니며 “시간 초과야” “아니, 아니에요.....” “맞아 지났어.....” 라고 하는 것에 지쳤고,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몰수했고 그 아이는 무척 화가 났지요.....

데비드: 그 아이에게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 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지 시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봐야겠지요. 핸드폰을 되돌려 줄 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필요한 시간을 다 할애하고 싶지만, 직장, 장보기, 식사 준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어느 곳에서든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시간은 빨리 날아 가 버리고, 아이들은 갑자기 50 센티미터씩 훌쩍 자라버리지요. 그러니 아이들과 활동을 해야 해요. 얼마 안 가 개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닐 것이고, 어디로 떠나 버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목: 디지털 시대의 가족

(박수)

시모네: 데비드와 끼아라 감사 드립니다!

## 11. 로베르토 치폴로네 -치료, 장인, 예술가

시모네: 로베르토 치폴로네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이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작가 명은 치료이며, 강가, 폐허들 등 모든 곳에서 발견하고 모은 폐품들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 입니다. 우리는 피렌체 가까이, 로피아노에 있는 그의 작업장에 들어가볼 특혜를 얻었습니다.

로베르토 치폴로네 “치료” 로피아노 (in italiano): 재미있는 물건이지요? (공백)

사물들이 내게 오지, 내가 사물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만난 후, 나는 그 것들을 변형시킵니다. 마치 번역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미 무언가 이루어진 것을, 단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가든 내게 무언가를 제안하는 것은 다 활용합니다. 철 일수도 있는데, 어느 모로 내가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알인데, 녹이 많이 쓴 것은 자체가 거의 유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새끼 오리입니다. [설명 “작은 오리”, 치료의 손에 있는 물건을 가리킴]

플라스틱, 유리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나무 조각을 보세요! 오래 살았지요? 100 번 니스 칠을 한, 배의 나무 조각인데, 이 것들은 굉장한 것이니 세월의 두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술가와 장인을 그다지 구분 짓지 않습니다.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치들을..... 복원시키기에 이르는 것인데, 그 가치들은 농부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지난 세월의 어느 정도의 깊이를 지녔던 삶의 가치들인데, 서서히 잃어가고 있지요.

일을 하는 중에, 어떤 때 라디오에서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나는 내 작업에서 어느 모로든 이에 개입을 해야 함을 느낍니다.

내가 더 애정을 지닌 작품들은 삽으로 만든 것들인데, 복원한다는 의미를 온전히 표현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삽의 형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단순하면 할수록 더 끌립니다.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에서 주문 받은 것으로 7 가지 자선행위 입니다. 첫 번째 것은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시신들을 묻어주고, 순례자를 맞아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마지막은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시모네: 치료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예술품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 13. 끼아라 루빅의 목상: 다시 사랑의 불을 당깁시다

시모네: 이제, 서로 다른 여러 다양한 스토리들 다음으로 끼아라의 전화 통화 하나를 들어보고자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첫 합동전화들 중 하나인데, 그 때는 인터넷은 없었지만,

전화기는 있었지요.. 이 합동전화는 전 세계 90 개 도시와의 동시 합동 통화였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1986 년도의 이 구절에서 끼아라는 사랑의 불을 다시 당기 자고 말합니다.

[.....] 이제 우리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덕을 습득하고 키워가기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겠습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 우리 자아 대신,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사랑 이시듯,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에 대해 말하므로, 이번에 또다시 이를 강조하는 것은 필요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 사랑이 아닌 것은 언제나 수많은 구실로 위장한 채 우리를 지배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그러니 우리 영성의 알파, 곧 사랑으로 되돌아갑시다. 이는 바로 우리의 카리스마이며, 오늘날에도 세상이 더 필요로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예수님께서서 이 땅에 가져오신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리, 가게, 찻집, 사무실 등 어디든지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지만, 상대방에 대해 무관심한 채 입니다.

신문을 읽어보면, 사회면의 기사들은 거의 매번 불미스러운 일, 폭력에 관한 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가정과 우정을 맺어주는 인간적인 사랑은 있지만, 크리스찬적인 사랑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가져가도록, 다른 이들과 함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류에게 해야 할 커다란 선물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구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곳곳으로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도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의 참된 특성, 즉 사랑을 대규모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맙시다!

하느님께서서 우리를 쓰시어 온 땅에 그물을 펼치셨으니, 그 그물이 점점 더 촘촘해 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께서서 땅 위에 가져오신 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도 보다 쉽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서나 하루빨리, 참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사랑의 불을 당깁시다! 전력을 다해 사랑하기로 합시다!

### 13. 결론

안젤라: 그 동안 몇 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보냈습니다. “좀 전에 엠마우스가 얘기한 사업회의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감사 드리며, 우리는 그 곳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시모네: 그리고 여기 근처 그로타페라타의 한 수녀님이 보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합동전화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선이 세상에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것을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일치된 사람들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느낌입니다.”

안젤라: 감사합니다!

이제 합동전화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리고, 합동 전화를 준비하는데 기여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합동전화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지원과 우리 각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합동전화 사이트에 연결하여 계좌송금을 하거나, 페이팔로 1 유로, 1 페소, 1 달러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모네: 그래요, 안젤라! 우리는 합동전화 배후의 경험에서 그룹 작업과 일치의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우리의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박수)

안젤라: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전 세계 여러분을 빨리 뵈기를 바라면서, 전 세계 모든 분께 인사 드립니다.

다음 합동전화는 11 월 18 일 이태리 시간 저녁 8 시에 있겠습니다.

안젤라, 시모네: 차오!!!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박수)